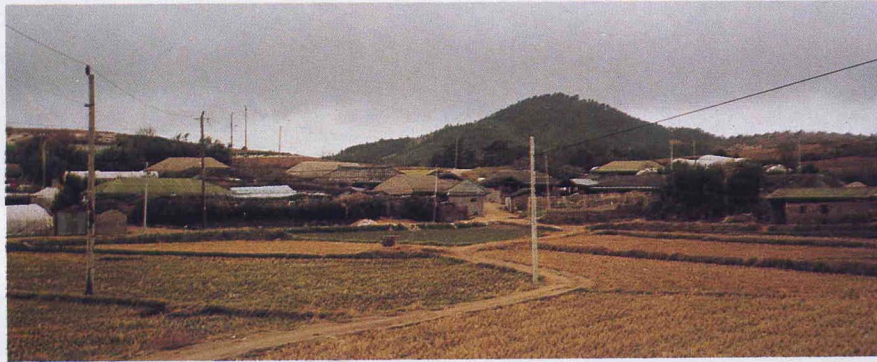


각 마을의 由來

◎ 장촌리(長村里)



백기도부락
(진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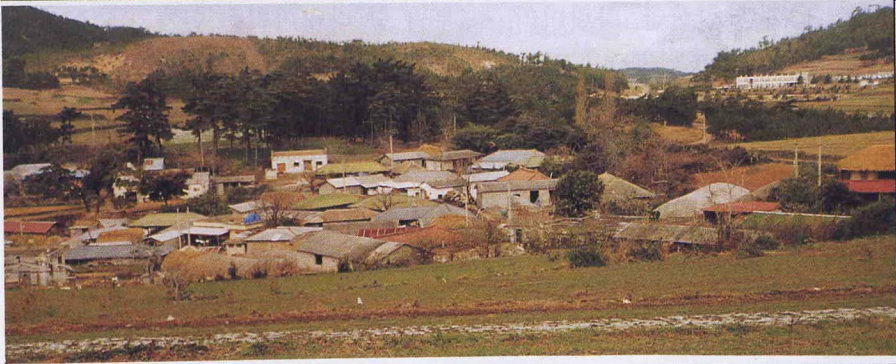
고교 원부락
(옛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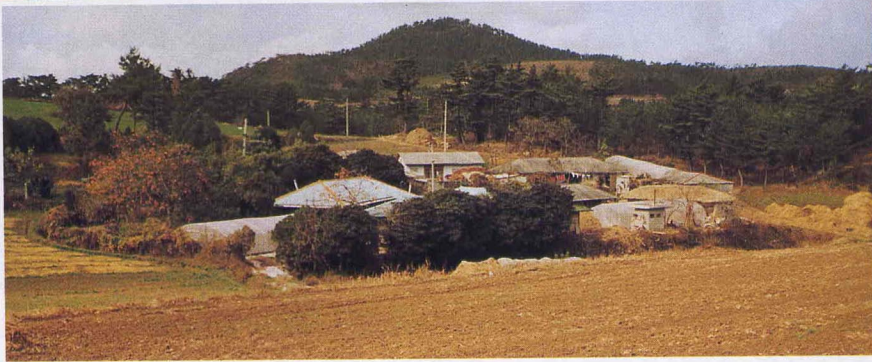
고교
소근 부락



소근 부락
(부속마을)
해변가 소
근목에는
인가가 없
어졌다



원마부락
(원부락)



원마 안신골
다릿머리
에는 인가가
없어졌다



장촌리
본부락
(사근다리)

장촌리는 장촌(長村;삭은다리) 본부락과 원마(遠馬), 고교(古橋;옛다리), 백기도(白驪島) 부락을 합친 법정리명(法定里名)이다. 본부락인 장촌은 옛날에 마을 앞 길에까지 해수(海水)가 드나드는 개(浦)가 있었는데 그 개를 건너는 다리가 썩었다 하여 지금도 삭은 다리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에서 읍리로 가는 길가에 팔바위라는 여덟 개의 바위가 있었는데 50년 전만 해도 해가 질 무렵이나 비내리는 밤에는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난다고 하여 사람들이 이 길 지나가기를 무서워했다고 한다. 지금은 간선도로 확장으로 바위가 모두 없어졌다. 탐목 고개 밑 관내에 팔금중학교가 있다.

원마(遠馬)부락에 속한 안산골, 다릿머리, 두 부락 중 다릿머리는 인가가 없어졌다. 370년 전 전주최씨(全州崔氏), 350년 전 진주강씨(晋州姜氏)가 입도했다. 각기 세장산이 있다. 고교 부락에 속한 소근목, 백기도 부락 중 소근목의 해변엔 인가가 없어졌다. 백기도는 옛날부터 팔금의 관문인 객선의 기항지로서 1989년 말경 팔금 — 안좌면간 연도교(連島橋)가 완성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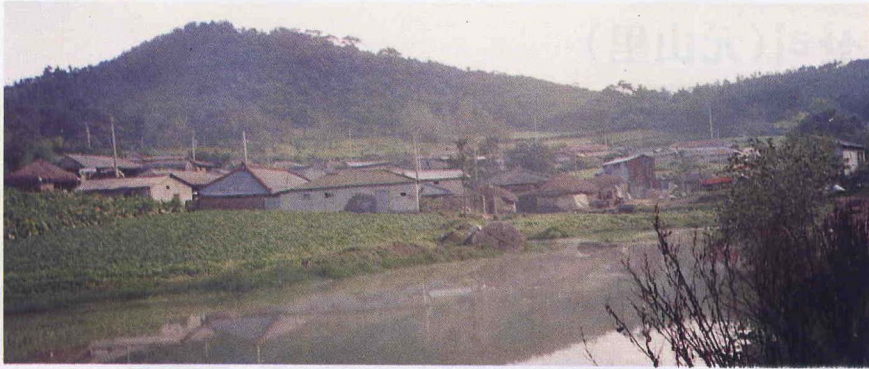
◎ 대심리(大深里)



소심부락
(작은물)
우편에 교회
건물이 보임



대산두 부락
(저너메)
소드랑섬
수문안에는
인가가
없어졌다



대심리
본 부락
(깊은골)



대심리는 대심(大深;깊은골) 본부락과 소심(小深;작은물), 대산두(大山頭;큰산두)저너메 <본부락에서 재너머란 뜻> 부락을 합친 법정리명(法定里名)이다. 본부락인 대심에는 350년 전 이천서씨(利川徐氏)가 제일 먼저 입도한 곳으로서 동리 뒤편에서 씨 세장산(世葬山)이 있다. 소심부락 건너편 우물 위의 밭에 80여년 전 팔금학당이 있었으며 부락 앞에 몇 년 전에 건축된 교회가 있다. 대산두 부락은 1980년 경 군 내에서 제일 먼저 취락 구조(聚落構造)개선 마을로 선정되어 동네 길이 바둑판같이 뚫려진 곳이다. 왼쪽 골짜기 위 산밑에 절(寺)이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절은 없어지고 우물터만 남아 있다. 이 부락에 속한 소드랑섬 수문 안에도 인가가 없어진 지 오래 됐다.

◎ 원산리(元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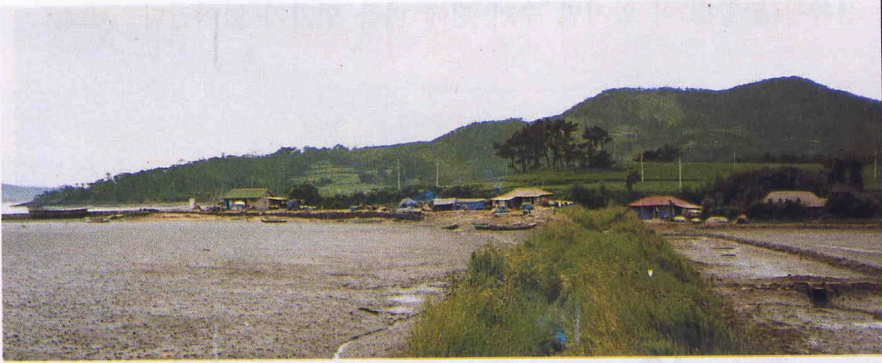
서근부락
(선산 김씨
입도 본거
지)



비노지부락
(서근 부속부
락)
서근부락 입
구에 있다



장목부락
(현 자치행정
리)
북진 부락은
인가가 없어
졌다



원산리
작두지 마을
(본부락 앞
부두)



원산리
본부락
(우편에 교
회 건물이
보임)

원산리는 원산(元山) 본부락과 서근(西近), 장목(長目) 부락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 부락인 원산을 옛날 어떤 도인(道人)이 멀리서 바라보니 마을 뒤에 큰 산이 있어 마을 형세가 좋아 마을에 와 보니 그 산은 바다 건너 암태면 되봉산이었음을 알고 원산(遠山)이라 했다고 한다. 그 산이 객산(客山)이라, 이 마을에 객지에서 와서 산 사람은 부자가 되고 본 주민이 오래 살면 망한다고 해서 원산(元山)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30년 전에 방(方)씨가 입도하여 살았다고 하나 일찍이 없어졌고, 그 후 창녕조씨(昌寧曹氏)가 입도한 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 300년 전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입도 주촌(主村)을 이루고 있다.

1934년 4월 경 암태 도창교회 김정순(金正順)전도사의 개척에 의해 팔금에서는 최초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팔명학원(八明學院)도 광복 직전에 이 부락에서 문을 닫고 말았다. 서근(西近)부락은 선산김씨(善山金氏) 입도지로 세장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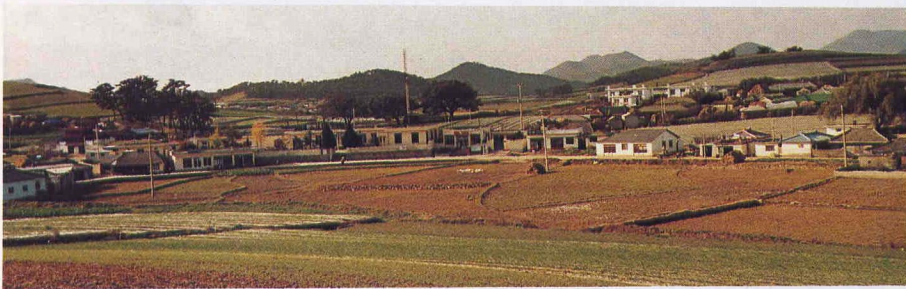
장목(長目)부락은 1980년 1월 1일 행정리(行政里)로 승격되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후 한양조씨(漢陽趙氏)가 입도한 곳으로 먼 곳에서 바라보면 숲이 길게 눈에 띈다고 하여 장목(長目)이라 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속한 북진(北津)은 암태면 남진(南津)

을 오고가는 선착장(船着場)이 있지만 수년 전에 마을 인가가 없어졌다.

◎ 읍리(邑里)



읍산두 부락



덕진 부락
오른쪽 (동
쪽)에 국민
학교가 있
다



읍리 본부락
(골안)



읍리 본부락
바로앞에 3
층탑이 있
고 왼쪽에
교회와 면
사무소가
보인다('띠
섬:茅島'부
락 사진은
빠졌음)

읍리는 읍리(邑里<골안>) 본부락과 덕진(德津), 소산두(小山頭;작은 산두) 부락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부락인 읍리는 면 중심지로서 각 기관이 있는 곳이다. 옛날에 진고 저수지 부근에 포구(浦口)와 덕진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이곳에 기항(寄港)하여 적선의 동정을 살피려고 닭메산(金堂山)에 올라갔었다고 하며 마을에 사장(射場)이 있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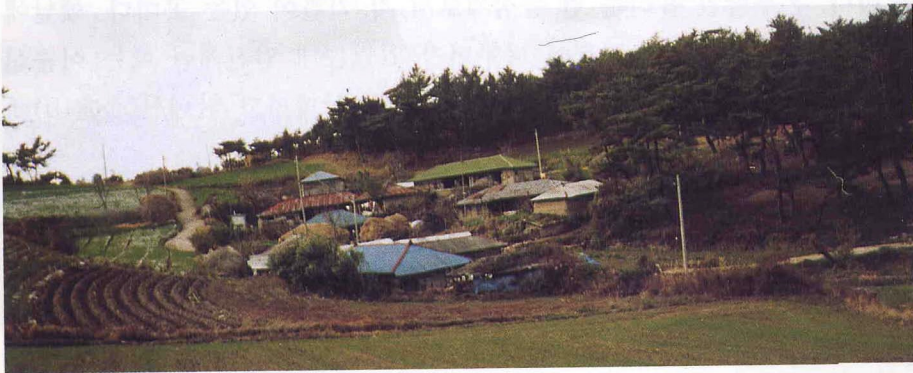
고적(古蹟)은 신라형으로 추정되는 석탑(石塔)이 있고 마을 뒷산 석벽(石壁)에 날개 돌힌 장사가 무릎을 꿇었다는 움푹 팬 흔적과 그 위편 평석(平石)에도 장사 오줌방울이 떨어져 꿇었다는 곳이 있다.

북편 토성(土城)의 방풍림(防風林) 30여 주(株)의 노송과 덕진(德津)쪽 고목 팽나무가 풍치를 이루고 있다. 소산두 부락은 옛날에 비해 부촌으로 변했고 관내 띠섬(茅島)은 예나 지금이나 인가가 있다. 독석목(돌이 서 있는 목) 삼거리에 어떤 도사(道士)가 세웠다는 돌이 서 있다. 소산두 부락에서 바라다보이는 닭메산 계곡 위 산에 1970년 경에 창건된 영덕사(榮德寺)가 있다. LA올림픽에서 권투(拳鬪) 동(銅)메달을 수상한 전칠성(全七星)도 이 소산두 마을 출신이다. 띠섬은 소산두에 속한 자연부락이다. 현 영덕사 밑 골짜기에 절(寺)이 있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계곡 아래쪽에 우물터가 있다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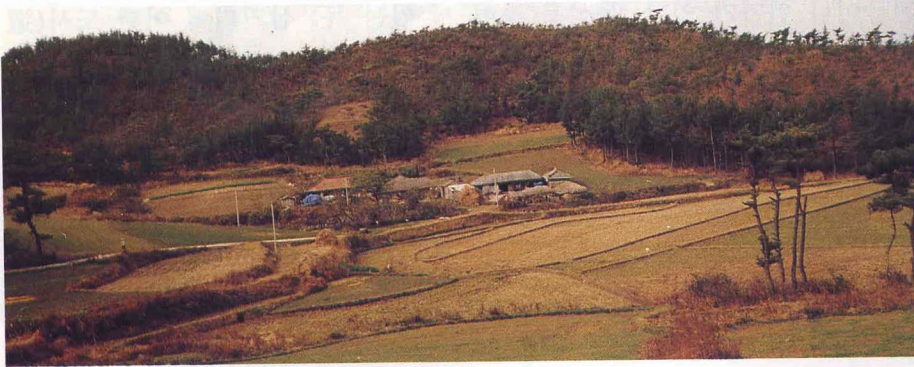
◎ 진고리(眞古里)



둔봉(둔별이)부락
재너메부락
왼편에 양성 이씨 입도조 선산이 있다



둔봉(둔별이)부락
(상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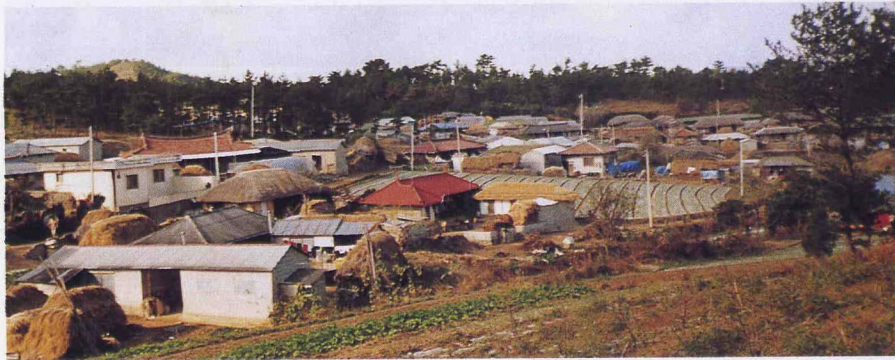
둔봉(둔별이)부락
(하촌)



진고리
본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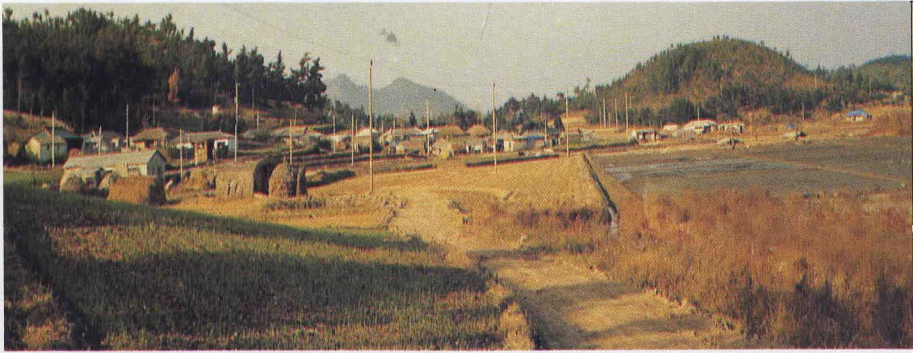
오림부락
(상촌)
교회 건물
이 보임



오림부락
(하촌)

진고리는 오림(烏林<오림이>), 진고(眞古<진구‘鳩’지>), 둔봉(屯蜂<둔벌이>) 부락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까마귀·비둘기·벌의 이름이 들어 있는 3개 부락이기에 비삼촌(飛三村)이라고도 한다. 40년 전에 진고부락에 살았던 북, 가야금, 창을 잘한 고 양금중(故 梁今宗) 씨의 영향을 받아 북·장구·판소리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1973년 중앙방송국 전국 민요 백일장에서 1위를 수상한 정복천(鄭福千) 씨도 오림 부락 출신이다. 이 부락에 몇 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다. 370년 전 양성 이씨가 입도한 곳이 둔봉 부락인데 이곳에 세장산이 있다. 진고에는 355년 전 밀양 박씨(密陽朴氏) 입도조 세장산이 있다.

◎ 이목리(梨木里)



거문도
(거문지리)
입구부락



거문도
(거문지리)
안부락



매도(매무
리)부락
우편에 팔
금국민학
교 매도분
교가 안 보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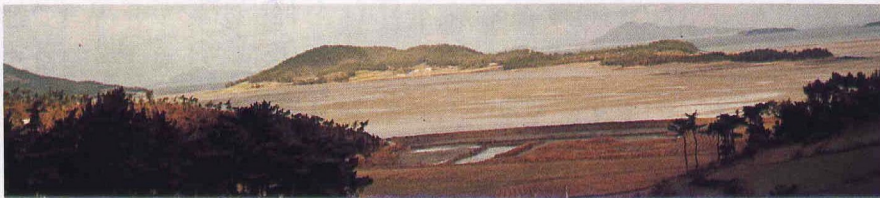
이목리
본부락
배낭(배나
무)골

이목리는 이목(梨木<배낭골>) 본 부락과 거문도(巨文島<거문지리>), 매도(梅島<매무리>) 부락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 부락인 이목은 325년 전 진주강씨(晋州姜氏)가 전주최씨(全州崔氏) 데릴사위로 장촌리에서 살다가 두 아들 중 한 분이 분가 정착한 곳으로 배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거문도는 문필봉(文筆峰)인 고산(高山)이 바로 바라보여 문필로 재주 있는 사람이 난다고 거문(巨文)이라 하고 매도는 매화나무가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 하나 동백나무도 있다. 1968년 3월 6일 팔금국민학교 매도분교가 이곳에 설치되었다. 이목 본부락은 당초 밀양박씨(密陽朴氏)가 355년 전에 입도한 마을로 그후, 전주최씨(全州崔氏)가 335년 전 원마에서 분가해 정착했으나 후손이 강씨(姜氏)만큼 번성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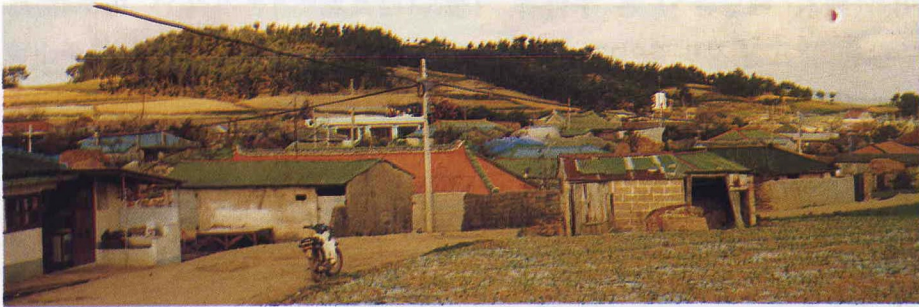
◎ 당고리(唐古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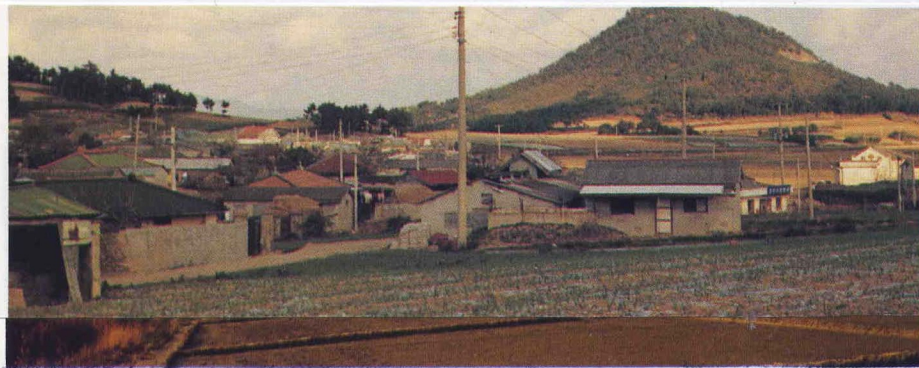
고산(높은
매)부락
(현 자치행
정리임)



거제도 부락
멀리 산 밑
에 부락이 보
인다



당고리
본부락
(상촌)



당고리
본부락
(하촌)

당고리는 당고(唐古, 堂古<당고지, 당구지>) 본부락과 고산(高山<높은메>), 거사(擧沙)도 부락을 합친 법정리명이다. 본부락인 당고 마을 뒤에는 350여년 전부터 길게 대(竹)밭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었고 신당(神堂)이 있었다고 하여 당고(堂古)라 부르다가 고산에 올라가서 마을 형세를 보니 당나귀 형상이어서 당고(唐古)로 고쳐 쓰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이 길어서 상리(上里), 하리(下里)로 나눠 부르기도 한다.

옛날 조세(租稅)를 거두어 가는 목선(木船)이 당 주변 거목(巨木)을 베어 싣고 가다가 당지기에 의해 배에 불이 나서 파선(破船)됐는데 그 파선된 곳인 거사도 뒤 해변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엽전(葉錢)과 불에 탄 쌀이 나왔다고 한다. 고산 부락에는 동복오씨(同福吳氏)가 먼저 입도했고, 그 후에 김해김씨(金海金氏)가 해남군 일성산에서 입도했다고 한다. 1982년 1월 1일 행정리(行政里)로 승격되었다. 해변가에 선착장이 있는데 연간 연도교가 완성되면 9개 면의 관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곳이기도 하다. 거사도는 이 부락에 속한 자연 부락이다.